



물러마티니 오비트 삼면재단기 통한 생산성 ‘업!’ 미국의 톰슨로이터사, 작업전환 조별 1시간 절감

작업공정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하며, 칼의 성능과 내구성은 물론이고 간편하고 빠른 교체를 실현한 물러마티니의 오비트 삼면재단기를 통해 인쇄업체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자료 제공 | 물러마티니코리아

미국 미네소타주 이간 지역에 위치한 톰슨로이터사는 물러마티니의 오비트 삼면재단기를 통해 조별 작업교대 때마다 1시간의 작업전환 시간을 절감하고 있다.

삼면재단기는 일반적으로 소프트 커버 라인에서 작업을 전환하는 동안 종종 시간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곤 한다. 바로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톰슨로이터사는 보유한 무선제책 시스템에 물러마티니 오비트 삼면재단기를 연결, 설치했다. 그 효과는 설정시간의 단축, 생산공정의 간소화, 칼의 내구성 강화로 즉시 나타났다.

덴 더피 삼면재단기 트레이너는 “오비트 삼면재단기 칼의 내구성과 성능이 훨씬 뛰어나며, 전체 칼 세트는 물론이고 각각의 칼날도 빠르고 쉽게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3대 인쇄사, 3/4이 무선제책 작업

톰슨로이터사는 연간 1만5000개 이상의 다양한 출판물을 하드커버와 소프트커버로 수백 만 부를 생산한다. 4대의 소프트커버 라인을 사용하는 톰슨로이터사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인쇄사로, 생산하는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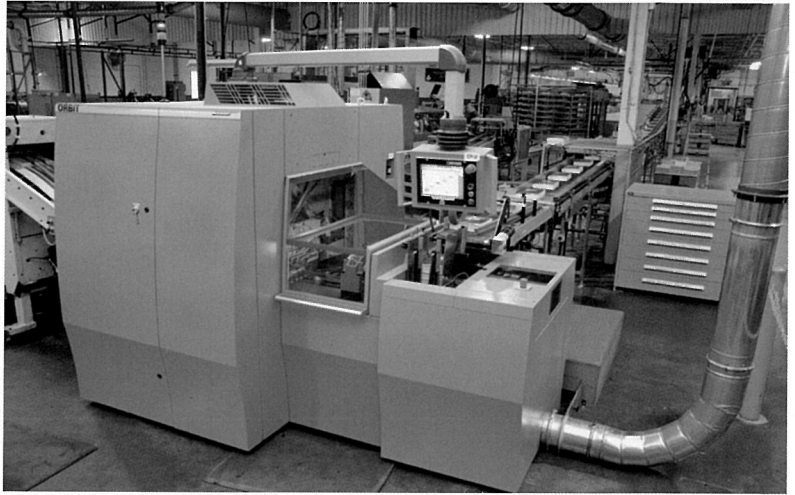
자 3/4 정도를 무선제책 방식으로 작업한다. 소프트커버 라인에는 물러마티니 2대의 무선제책기인 례바인더와 포니바인더를 보유하고 있다. 인쇄물량이 점차 소량다품종화됨에 따라 이간 지역에 위치한 인쇄사들도 작업 시 이전보다 많은 작업전환을 필요로 한다. 록키 앤 생산 책임자는 “교대할 때마다 각 라인 별로 10번에서 12번 정도 작업전환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별 평균 10~12회, 작업전환 당 5분 절감

후가공 작업을 진행할 때 삼면재단기는 넘어야 할 걸림돌이었다. 지난해부터 톰슨로이터사는 2대의 무선제책 라인에 2대의 물러마티니 오비트 삼면재단기를 연결, 가동했다. 결과는 깜짝 놀랄만한 정도로 좋았다. 오비트를 사용해 이전보다 5분이나 빨리 작업전환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크리스 트로예 기장은 “삼면재단기가 더 빨리 작업전환 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서 “이처럼 빠른 속도는 기대를 넘어서는 것이다. 조별로 작업을 교대할 때마다 준비시간을 1시간씩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황 부합하는 미세조정으로 속도 향상

투스론티터사에서만 31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던 더피 기장은 삼면재단기 가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은 오비트의 편리한 가동 매카니즘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독립 가동기술 덕분에 상황에 맞게 미세조정을 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전체 무선제책 과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고 완성품의 품질도 더욱 좋아졌다”면서 “책 사이즈 상세 설명이 2대의 오비트 삼면재단기에 입력되면, 99 퍼센트의 경우에는 미세조정이 필요치 않다. 이전에 사용하던 삼면재단기는 이 수치가 5퍼센트 정도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혁신적인 기술 및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게 고안된 오비트 삼면재단기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작업과 훨씬 많은 작업량에 적합하다.

가동 위한 적응 기간 매우 짧아

오비트는 매우 쉽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장들의 적응기간도 매우 짧다. 트로예 기장은 “오비트를 가동하는 것은 처음부터 느낌이 좋았다. 사용한지 2주가 지나니 더욱더 좋아졌다. 다른 삼면재단기의 경우 적응하고 익숙해지기까지 통상 6개월이나 그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스론티터사는 다른 무선 제책기와 다이아몬드 양장기에도 2대의 물러마티나 메리트 삼면재단기를 연결해 사용했다. 더피는 “오비트 2대를 설치하기 전에는 메리트 모델을 사용해 교육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면서 “오비트 삼면재단기와 메리트 삼면재단기는 비슷한 가동시스템과 명령어 입력화면을 채용한 덕분에 교육기간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했다.

재단기의 핵심인 칼의 내구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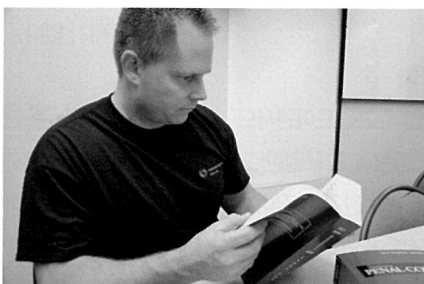
오비트는 최대 80mm 두께의 책을 작업할 수 있는데, 사전 정합으로 두꺼운 책자의 작업도 매우 빨라졌다. 사전에 정합된 책들이 삼면재단기를 통과해 이동하는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칼이 치워져야 했다. 하지만 오비트의 서보 조절 시스템 덕분에 칼날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다. 스티브 웨버 제책 부문 이사에 따르면 오비트는 재단 품질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칼도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으며, 설정 시간도 이전보다 훨씬 빠르다. 그는 “한 세트의 칼날로 18만권의 책을 재단할 수 있다. 오비트를 가동하고 2달이 지나자 재단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스마트프레스 기술의 완벽한 마무리

흠 잡을 데 없는 정합, 완벽한 제책, 부드러운 이송과 깔끔한 재단은 완벽한 무선제책을 위한 필수 과정이다. 혁신적인 기술 및 완전 자동화가 가능하게 고안된 오비트 삼면재단기는 보다 높은 수준의 작업과 훨씬 많은 작업량에 적합하다. 최고 수준의 생산성과 지속적으로 높은 품질을 유지하는 안정성 때문에 오비트 삼면재단기로 작업하면, 항상 정시 마무리가 가능하다.

잘 다듬어진 세 방향에서의 지속적인 삼면 재단 작업은 고품질의 생산품을 꾸준히 생산한다. 이는 물러마티나의 스마트 프레스 기술 때문이다. 스마트 프레스 기술은 인쇄물의 날장 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압력 과정을 부드럽게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다. 간결한 삼면재단 기술은 완벽한 재단을 보장하는 이상적인 방법이다. 적용된 스마트 프레스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프레스 과정 중에 공기를 최적의 방법으로 제거하고, 프레스 과정은 부드럽고 강력하며, 각각의 책을 압착할 때마다 개별 조정을 하기 때문에 품질도 일정하다.

높은 품질의 무선제책 상품을 위해서는 최적의 재단 속도가 꼭 필요하다. 오비트 삼면재단기에는 이송기, 프레스, 재단기에 각각의 개별적인 드라이브가 설치돼 있다. 칼을 조절하는 드라이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스마트 프레스로 작업을 하는 데 보다 효율적인 시간을 보장한다. 또한 기계 회전수에 상관없이 이상적인 재단 속도를 보장한다. ↻



잘 다듬어진 세 방향에서의 지속적인 삼면 재단 작업은 고품질의 생산품을 꾸준히 생산한다. 이는 물러마티나의 스마트 프레스 기술 때문이다.